

정신의 발달과 삶의 의미

2025년 7월 7일

팽창된 자아

자아(ego)가 의식적 인격의 중심인 것처럼 자기는 전체 정신(의식과 무의식을 합친 정신)의 질서 및 합일적 중심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이는 주관적(subjective) 정체성의 자리인 반면, 자기는 객관적(objective) 정체성의 자리다. 따라서 자기는 최고의 정신적 권위이며 자이를 자기에 종속시킨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기는 내면의 경험적 신성(deity)으로서 하느님 형상(imago Dei)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융은 자기가 특징적 현상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기는 만다라로 불리는 어떤 전형적인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된다. 중심을 가진 원을 강조하고, 보통 사각형, 십자가 또는 기타 사위의 부가적 특징을 가진 모든 이미지는 만다라 범주에 해당한다.

또한 자기를 언급하는 기타 관련 주제와 이미지들은 수없이 많다. 전체성, 대극의 합일, 중심점, 세계의 배꼽, 우주의 축, 신과 인간이 만나는 창조적 지점, 초개인적 에너지가 개인적 삶으로 흘러드는 창조적 지점, 일시적 흐름에 반대되는 영원성, 부패하지 않음,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가져오는 유기체적이고 보호적인 구조를 역설적으로 합일하는 비유기체, 에너지의 변환, 생명의 선약(elixir)과 같은 모든 주제는 모두 삶의 에너지의 중심 근원이며, 가장 단순하게는 신으로서 묘사되는 우리 존재의 원천은 모두 자기를 언급하는 것이다.

출생 후 몇 년 후의 관점에서 아동의 자아와 신성의 긴밀한 연결은 팽창상태에 있다. 후기의 많은 심리적 어려움은 신과의 동일시의 잔재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생애 첫 5년 동안의 아동의 심리를 고려해 보라. 한편으로 그것은 신선한 지각과 반응의 시간이다. 아동은 삶의 원형적 현실과 즉각 접촉한다. 그것은 장엄하고 두려운 초개인적 힘이 모든 평범한 사건 속에 잠재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동은 잔인함과 탐욕의 총체인 이기적인 야수일 수 있다. 프로이트(Freud)는 아동기 상태를 다형적(polymorphous) 도착(perversion)으로 기술하였다. 이것은 끔찍한 기술이지만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진실이다. 아동기는 순진무구하지만 또한 무책임하다. 따라서 아동

은 원형적 정신 및 개인외적 (extrapersonal) 에너지와 확고히 연결되어 있는 존재의 모든 모호함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것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된 존재이며, 비현실적으로 그것과 연결된 존재다.

아동은 원형적 정신과 자아의 동일시 그리고 외부세계와 자아의 동일시를 원시인과 동일하게 갖고 있다. 원시인들에게 내부와 외부는 전혀 구분되지 않는 것이었다. 문명인들의 정신에서 원시성은 자연과 가장 매력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삶의 과정과 조율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시성은 또한 야만스러운 것이며, 어린 아동이 그런 것처럼 팽창의 실수에 빠진다.

삶의 의미의 근원으로부터 고립된 현대인은 원시성의 이미지를 동경한다. 이것은 한 쪽 측면이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원시인의 실제 삶은 더럽고 비열하며, 공포에 강박적이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원치 않을 것이다. 우리가 동경하는 것은 상징적 원시성이다.

인간의 심리적 근원을 뒤돌아보면 그것은 이중의 암시를 갖고 있다.

첫째, 그것은 낙원, 전체성, 자연 및 신과의 하나의 존재 상태, 즉 분명히 바람직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것은 시간 및 공간 현실과 관련된 우리의 의식적인 인간 기준에 의해 그것은 팽창된 상태이며, 무책임, 신을 믿지 않는 정욕, 교만과 조악한 욕망의 조건이다. 성인에게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동일시의 팽창을 일으키지 않고 아동기에 시작된 자연 및 신과의 합일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다.

동일한 질문이 아동 양육의 문제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아동을 팽창상태로부터 제거하고, 아동에게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념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인간의 성격을 강하고 탄력 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형적 정신과의 살아 있는 연결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자아의 자기 동일시를 해결하면서 자아-자기 축의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아동 양육에서의 허용 대 훈육의 모든 논쟁이 달려 있다.

허용은 아동의 자발성의 수용과 격려를 강조하며 아동이 가지고 태어난 생명 에너지의 근원과의 접촉을 장려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아동의 팽창을 유지·격려하며, 이는 외부 삶의 요구에 대해 비현실적인 것이다. 다른 한편, 훈육은 행동의 엄격한 제한을 강조하고, 자아-자기 정체성의 해체를 격려하며, 팽창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방법은 성장하는 자아와 무의식에 있는 자아의 근원 사이의 필요한 연결에 손상을 주는 경향이 있다. 이들 사이에 선택은 없다 이들은 대극의 쌍이며 함께 작용해야 한다.

아동은 상당히 문자 그대로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경험한다. 처음에 어머니는 그 요구에 응답한다. 따라서 이 최초의 관계는 아동의 바람이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아동의 감정을 격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아동의 욕구에 대한 어머니의 일관성 있고 전체적인 헌신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동은 심리적으로 발달할 수 없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세상은 필연적으로 아동의 요구를 거절하기 시작한다. 이때 근원적 팽창이 해체되기 시작하며, 이 팽창은 경험과 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일종의 치유되지 않은 정신적 상처, 즉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이 학습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그는 낙원에서 추방되며, 영구적인 상처와 분리가 일어난다. 반복되는 소외(alienation) 경험은 성인기의 삶으로 바로 이어진다. 개인은 이중의 과정에 끊임없이 직면한다. 한편으로는 삶이 제공하는 현실 직면에 노출되며, 이것은 자아가 자기와의 무의식적 동일성으로부터 성장하고 분리하는 방법이다. 동시에 우리는 전체 인격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자아와 자기 사이의 반복적인 재합일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가 자기로부터 분리되면서 그 둘 사이의 중요한 연결이 손상되는 매우 실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런 일이 심각할 정도로 발생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깊은 곳으로부터 고립되며 심리적 질병의 토대가 만들어진다.

모든 일의 근원적 상태 우주의 중심으로 자신을 경험하는 아동기 지나서도 지속될 수 있다.

는 상당히 문자 그대로 세상을 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외적 경험은 그것이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유한 실재성을 갖지 못하거나 의미가 없었다. 또 다른 한 환자는 자신이 죽으면 세상도 끝난다고 확신했다. 이런 생각을 만들어 내는 정신상태에서 자기와의 동일시는 곧 세상과의 동일시이기도 하다. 자기와 세상은 동일한 것이다. 이런 식의 경험방식은 진실, 즉 순수한 타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자아가 근원적인 전체성으로부터 나오려고 하는 매인 초기 발달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해로운 관점이다. 훨씬 후에 내적 세상과 외부 세상 사이에 지속성이 있다는 깨달음은 치유 효과를 갖는다.

많은 정신증은 자아가 우주의 중심 또는 최고의 원리인 자기를 동일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자신이 예수거나 나폴레옹이라는 정신 나간 사람들 사이의 가장 흔한 망상은 자아가 자기를 동일시하는 유아기적 상태로의 퇴행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은 또한 극단적인 자아 자기 정체성의 증상이다. 이런 경우, 개인은 어떤 객관적 사건들이 그와 숨겨진 관계가 있다고 상상한다. 그가 피해의식이 있다면 망상은 박해적 특성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자신의 아파트 창문 밖에서 전주 위에 전선을 고치고 있는 남자들을

보았다고 말한 환자를 기억한다. 그녀는 이것을 그녀의 전화 내용을 도청하기 위해 전화선에 도청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는 그것을 확신하였다. 또 다른 환자는 텔레비전의 뉴스 진행자가 자신에게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망상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인식, 그의 존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실인 외부 사건에 개인적 중요성을 주는 자아-자기 정체성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융은 이 개념을 분석심리학에 도입하여 '인간 정신의 원초적이고 구조적 요소인 원형'의 하나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였다. 삶의 배에 올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 성장을 거부하고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신의 측면을 주로 지칭한다.

그리고 언젠가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판타지가 있다. 이런 태도가 연장되면, 그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그 순간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관성 있는 내적 거절을 의미한다. 이것과 함께, 크고 작은 구세주 콤플렉스 또는 메시아 콤플렉스가 언젠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될 것이라는 비밀스러운 생각과 함께 존재한다. 철학, 종교, 정치, 예술, 기타의 것에서 그 결론적인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병리적 과대망상까지 갈 수 있으며, 자신의 패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것의 작은 흔적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한 가지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묶이는 것이다. 공간과 시간에 존재하게 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거기에 묶일 것이라는 끔찍한 두려움이 있다.

심리치료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사례를 자주 본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가장 유망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재능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사람의 불평 중 한 가지는 그의 능력과 흥미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저주는 재능을 너무 많이 받은 것이다. 그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 문제는 그가 기능성만 갖고 있고 그것을 다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성들을 희생시켜야 한다. 그는 근원적인 무의식적 전체성과의 동일시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전체 대신 현실적인(실질적인) 파편들을 수용해야 한다. 현실에서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의 가능성이 되기를 포기해야 한다.

푸에르 에테르너스 원형은 자기 이미지의 하나이지만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현실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의 팽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보다 작은 팽창의 예들은 매우 많다. 신의 속성으로 사는 누군가(우리 자신을 포함하여)를 볼 때

마다, 즉 적절한 인간 한계를 초월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팽창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분노의 저주들이 팽창된 상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의 환경을 강제하고 지배하려는 시도는 분노에 속한 지배적인 동기다. 그것은 일종의 여호와 콤플렉스다.

복수에 대한 열의 또한 신과의 동일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때에 "복수는 나의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며 금지 명령을 기억해 낼 수도 있다. 리스 비극의 전체 내용은 신의 몫인 복수를 인간이 직접 할 때 일어나는 치명적인 결과를 그리고 있다.

모든 종류의 권력 동기는 팽창의 증상이다. 개인이 권력 모티프로부터 작동할 때는 언제나 전지전능성이 시사된다. 그러나 전지전능성은 오직 신에게만 속한 것이다. 사적인 진실이나 의견을 우주적 진실과 동등하게 하려는 지적 경직성 역시 팽창된 것이다.

정욕과 순수한 쾌락 원리의 모든 작용도 마찬가지로 팽창이다. 그것의 충족을 중심 가치로 여기는 어떤 욕망도 자아의 현실 한계를 초월한 것이며, 따라서 초개인적 힘의 속성을 가정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는 영원불멸로 나타나는 팽창의 잔재를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팽창의 측면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죽음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것은 매우 두려운 경험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갑작스럽게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을 더욱 생산적이고 보다 인간적으로 관계 맺게 하면서 삶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해 준다.

팽창은 신성한 희생자 과도하고 절제되지 않은 죄책감과 고통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괴로운(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지나치게 자신이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팽창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적절한 인간 한계를 초월했기 때문이다. 지나친 교만뿐 아니라 지나친 겸손(비하), 지나친 권력 투쟁과 이기심뿐 아니라 지나친 사랑과 이타심도 모두 팽창의 증상이다.

아니무스, 아니마 동일시 상태도 팽창이다. 아니무스의 독단적 선언은 신의 말씀이며, 따라서 '내가 되라는 대로 너는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못 하게 하겠다. 내 허락이 없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등의 말을 하는 아니마에 사로잡힌 남자의 똥한 분노도 팽창이다.

타락 신화는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이 처음 탄생하는 패턴과 과정뿐 아니라 의식성의 증가를 위해 통과해야 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아담과 이브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영웅적인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더 큰 의식을 위해 이들은 수동적인 복종의

편안함을 희생했다. 우리가 편안함보다 의식에 더 큰 가치를 둔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뱀은 유익을 주는 존재로 판명될 것이다.

분석치료 과정에서의 많은 훌륭한 꿈에서도 인간의 이러한 근원적 타락 주제의 단편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꿈들은 새로운 의식적 통찰이 태어나고 있을 때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뱀과 만나거나 뱀에게 물리는 것이 꿈의 흔한 주제다. 뱀에게 물리는 꿈은 일반적으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즉, 과거의 낡은 상태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식적 통찰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종종 낯설고 위험한 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유쾌한 꿈은 아니다. 물리는 것은 보통 새로운 태도와 방향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기 꿈으로서 중요하다.

범죄를 저지르는 꿈도 과일을 훔치는 원죄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한 발달단계에서는 범죄인 것이 다음 단계에서는 적법한 것이며, 과거의 단계의 법칙에 도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심리 발달 단계에 이를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단계는 범죄로 경험되고 죄책감이 따른다. 사과, 체리, 토마토 같은 과일을 받거나 먹는 꿈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에덴동산에서 과일을 먹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해 새로운 의식 영역에 이르게 된다. 의식을 갖게 되는 것, 즉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갈등도 알게 됨을 의미한다.

다음의 꿈은 저 오래된 에덴동산의 주제에 해당하는 현대인의 꿈의 예다. 이꿈은 40대 남성이 꾸는 것이다. 그는 처음에 '작가의 슬럼프' 문제와 불안 때문에 나를 만나러 왔다. 그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영감으로 가득 찬 재능 있는 사람이 었다. 그는 가장 놀라운 꿈을 가져왔는데, 의상과 음악, 시작과 끝의 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연극에 관한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글로 옮기는 힘든 작업은 결코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꿈 자체가 적절한 현실을 갖고 있고 그 판타지 속에서 그토록 훌륭한 작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에서 그것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는 충분한 현실인 것 같았다. 근원적인 무의식적 전체성, 즉 가능성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힘든 일을 피하는 잠정적 삶과의 동일시다. 그가 글을 쓰고 싶어 하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판타지 그 자체가 충분한 현실로 간주되었다. 그런 사람은 실제적인 것을 창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의 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키르케고르(Kierkegaard)를 연상시키는 분위기 속에 앉아 있다. 나는 특정한 책을 찾으러 서점에 간다. 나는 그것을 발견하고 구입한다. 그 책은 가시덤불 속의 사람(A Man Among Thorns)」이다.

그런 다음 장면이 바뀐다. 내 여동생이 거대하고 검은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 케이크는 붉은 띠처럼 보이는 붉은색의 얇은 장식으로 덮여 있다. 초콜릿 알레르

기가 있는 내게는 초콜릿이 항상 금지된 것이긴 하지만 나는 나쁜 영향 없이 그 케이크를 먹는다.

꿈꾼 이의 연상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는 키르케고르를 문제 있는 사람, 반명제들(antitheses) 사이의 갈등, 즉 심미적 태도와 종교적 태도 사이의 갈등에 처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의 저서 이것이나 저것이나(Either/Or)는 전체 대극 문제를 나타낸다. '가시덤불 속의 사람'이라는 책 제목은 그리스도와 그가 쓴 가시관을 연상시켰다. 초콜릿 케이크에 대해서 꿈꾼 이는 항상 그것이 해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그를 아프게 만들기 때문이다. 붉은색 장식을 한 '붉은 띠는 그에게 '악마가 입는 것'을 생각나게 했다.

현대인과 개인적 이미지에 표현되기는 하지만 이 꿈은 아담의 낙원 추방이라는 고대 신화와 밀접한 병치를 이룬다. 이 원형적 병치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것이 이 인간 발달에서 잠재적인 전환기를 나타낸다고 가정할 수 있다. 꿈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케이크를 먹는 것이다. 케이크는 검은색이고 악마와 관련된 붉은 장식을 갖고 있다. 흰색의 반명제(antithesis)인 검은색은 사악함과 어두움을 의미한다. 꿈꾼 이의 경우 케이크는 무의식에 대한 그의 의식적 두려움을 나타내는 해로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해로운 케이크를 먹는 것은 상징적으로 뱀에게 물리거나 금지된 과일을 먹는 것과 동일하다. 그 결과는 대극의 인식(선과 악을 하는 것)이며, 이것은 의식적 갈등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성이 증가할 때마다 갈등도 생긴다. 그것이 새로운 의식성의 조각이 그것의 존재를 알리는 방식-갈등이다.

아담과 이브도 불복종으로 과일을 훔친다. 의지적(willial) 행위를 함으로써 권위 인물에 대항한다. 이는 처벌을 초래한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에덴동산으로부터의 추방과 같은 맥락이다. 고통, 노동, 노고는 이들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처벌이다.

이 모든 것은 의식화의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이다. 고통과 노고, 죽음은 의식성의 탄생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경험할 의식성이 없다면 심리학적으로 그것들(고통, 노고,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프로메테우스의 간은 낮 동안 독수리가 쪼아 먹고 밤 동안 회복된다. 낮은 빛, 의식성의 시간이고, 밤은 어둠, 무의식의 시간이다. 인간은 밤에 우리가 태어난 근원적 전체성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치유다. 그것은 마치 상처의 영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는 의식성 자체가 상처를 만들어냄을 의미한다.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프로메테우스의 상처는 근원적인 무의식적 전체성을 깬 결과, 즉 본래 단일체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한다. 그것은 살 속에 언제나 박혀 있는 가시다.

두 가지 모두 정신의 원형적 실제와 그것의 발달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의식성의 획득은 범죄, 즉 권위에 대한 오만의 행위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범죄, 즉 자연적

인 무의식상태로부터 의식성에 필연적인 소외를 가져오는 범죄다. 우리가 의식성의 발달을 조금이라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필연적인 범죄로 생각해야 한다. 동물적 상태에 머무는 것보다는 의식상태에 있는 것이 낫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자신이 나온 무의식에 팽창된 행위로 대항해 자아의 상대적 자율을 주장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수준이 있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그것은 우주의 힘, 자연의 힘 또는 신에 대항하는 범죄다. 그러나 실제로 매일의 일상에서 그것은 그렇게 종교적 범주로 경험되지 않고 상당히 개인적인 방식으로 경험된다. 개인적 수준에서 감히 새로운 의식성을 획득하기 위한 행위는 개인의 환경에 존재하는 권위, 부모, 나중에는 기타 외부 권위에 대항하는 범죄 또는 반항으로 경험된다. 개성화의 어떤 단계도 집단에 대한 범죄로 경험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가족이든 정당이든 교회든 국가든 간에 집단이 표방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각 단계에서 정말로 그것은 팽창된 행위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수반할 뿐 아니라 타락의 결과를 초래한 팽창 속에 갇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필연적인 범죄를 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멈춰 버린 수많은 사람을 심리치료에서 만난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부모나 가족을 실망하게 할 수 없어요." 어머니와 살고 있던 한 남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혼하고 싶지만 그게 불쌍한 늙은 어머니를 죽게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존재할 수도 있는 공생적인 관계가 문자 그대로 일종의 정신적 자양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음식이 중단되면 상대방은 당연히 죽는다! 이러한 사람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의무감이 너무 강해 표준적인 다른 삶을 생각조차 못 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팽창적 행위는 새로운 수준의 의식 성취를 위해 꼭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무모할 때가 많이 있다.